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와 가정건전도

Attitudes on Home Education & Soundness of Home Life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池英淑

강사 李映浩

Dept. of Home Management Sung Kyun Kwan University

Prof: Young-Sook, Chi

Lecturer: Young-Ho, Lee

〈목 차〉

- | | |
|------------------------------|--|
| I. 서론 | V.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가
가정건전도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
| II.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와
가정건전도 | |
| III. 연구 방법 | |
| IV.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와
가정건전도 분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s of parents on home education and soundness of home life.

The samples were composed of 629 home educators selected by family life cycle and local distribution.

Consequent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that self-confident attitudes on home educ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oundness of home life. Also, soundness of home life depend on fathers participation in home education.

I. 서론

가정은 인간 삶의 기본적 공동체이고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심장이다. 따라서 건전한 가정의 육성은 개

인과 사회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필수과제이다. 특히 현대 가정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재생산하고 이들 개인을 적절한 사회성원으로 사회화시켜야 하며, 경쟁적 산업사회에 적응하도록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요구된다(이동원, 1996). 여기서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일반의 문화와 가치와 규범을 인간의 초기 성장기에 학습하고 공유하며 자기의 성격, 인성,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양식, 습관 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므로, 사회화과정이란 명백한 가치지향을 갖고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화를 진행시키는 가정교육을 의미한다.(신용하·장경섭, 1996). 따라서 건전 가정을 위한 필수 조건은 원만한 가정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정교육은 매우 엄격하였고 가족 및 사회를 생각하는 윤리·도덕적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교육이었음은 이미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신용하·장경섭, 1996). 그러나 최근에 우리사회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여유를 가질 수 없도록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비중은 학교교육이나 지식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조성숙, 1995). 이는 가정이 갖고 있는 사회화기능에 지장을 초래함을 의미하며, 건전가정의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가정교육의 핵심은 부모로부터 출발하므로 부모에게 부과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바른 의지와 신념이 무엇보다 필요하며(지영숙·이영호, 1994), 이는 부모의 가치관이나 태도, 신념은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됨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유효순, 1996). 따라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들이 가정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가정의 건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건전가정 육성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와 가정건전도

1.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

현대의 부모들은 과거의 부모들에 비해 자신의 자녀가 유능한 성인으로 사회화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되었고(이은화, 1996),

또한 현대사회는 가치의 다양성이 전제되므로 모든 가정에 공통되는 단일목표를 제시할 수 없게 되어 부모는 가정교육의 목표와 방향설정에 있어 불분명하고, 가치기준의 상실로 권위와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지영숙·이영호, 1994b).

그러나 일단 부모가 되면 그 사람은 자녀에 대하여 교사로서 또한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떠맡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에게 부과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바른 의지와 신념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된다. 또한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훌륭한 교육안이라기 보다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자에게 있다(김영길, 1995)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의도적인 가정교육의 내용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가정교육의 효과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부모의 행동과 그것을 규정짓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가정교육이란 생활속에서 무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태도는 행동을 규정짓는 중요한 조건이고, 학습의 기초로써 일정한 행위방식으로 사회의 事象을 지각하고 또 그것에 따라 행동하려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성향을 의미한다(塩田芳久, 1963). 따라서 가정교육에 대하여 부모가 갖고 있는 태도를 측정하고 규명할 수 있다면 가정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규정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지영숙·이영호(1994a)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자신에게 보여준 행동양식과 언행 및 태도에 대한 보고서를 통한 조사에서 부모에게 기대되는 것은 민주적인 가정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치의 전환과 구체적인 행동양식의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자녀개인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기본적 태도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영숙·이영호(1994b)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들이 가정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써스톤척도법을 기초로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고안하였다. 고안된 척도는 총 80

개문항중에서 가정교육에 관심이 높은 평가자를 다수 선별하여 그들의 평가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24개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에서는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목적으로 자녀 지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자녀를 둔 어머니 1,238명을 우선표집하여 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김영철, 1996). 현실적 부모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통적 부모됨의 유형인 '嚴父慈母'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결과 嚴父慈母의 유형보다 '엄하기도 하고 자애롭기도 한 아버지와 엄하기도 하고 자애롭기도 한 어머니'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는 '부모 두사람이 힘을 합쳐야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자녀는 부모보다 더 나은 존재로 키워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리고 '부모가 되려면 준비나 훈련이 필요하다' 등의 순서로 나타나 대체로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강한 책임감과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 가정건전도

건강가족, 건전가정에 대한 개념정립과 관련하여 볼 때 사전적으로 '건강(健康)은 몸에 탈이 없이 튼튼함, 육체나 정신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상태'로 풀이되며, '건전(健全)은 건실하고 완전함, 건강하고 병이 없음, 의지가 확고하고 중용을 잃지 않는 상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분별이 있음'으로 풀이 되고 있다(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이러한 건전한 가정의 육성을 위한 노력과 연구는 그간 '건전가정', '건강가족', '가정건전도'라는 용어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이라는 용어자체가 의학적이고 건전(健全)의 의미가 보다 포괄적이라고 보아 가정건전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가정건전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관련연구의 고찰은 건강가족, 건전가정, 또는 healthy family, strong family, 가정건전도를 구분없이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가족의 기능 및 가족기능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Strong Family', 또는 'Healthy Family'라는 용어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일본에서는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가정 또는 가정생활(Home Life)에 초점을 두고 가정경영적 측면에서 생활구조영역을 구분하여 그것의 영위가 얼마나 충실한가를 '가정건전도(Soundness of Home Life)'라는 용어로 조사되어왔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개별적 연구의 차원보다 건전가정의 육성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다수 개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의 연구는 1962년 Otto에 의하여 시작되어 그 후 Stinnet와 同僚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어 오고 있다. Otto(1962)는 가정의 Strength를 일련의 변화하는 구성요소 또는 궁극적 산물로 보았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상호작용하며 상호관련된 역동체라 하였고, 이러한 능력들, 수용력 또는 장점들의 다양함은 가족생활주기를 통하여 발생되고 발전되어 나간다고 하였다. 구성요소들은 Strength로 정의되나 총체적인 것은 아니며, 그 구성요소들의 결과로 'Family Strength'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Lauerne R. Barnhill(1982)에 의한 Healthy Family에 대한 연구는 가족을 精神病理의 기초적 단위라고 보는 가족 치료적, 정신 의학적 관점이다. 즉, 인간의 精神健康의 근원지가 가족이며 병리적 현상은 가족의 기능약화,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Stinnet(1986)는 20세기동안 개인의 발달, 자아성취에 대한 탐구가 중요한 조류로서 전개되어 왔으나 그러한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의 가정의 중요성을 간과해 버린 것이 미국의 가족문제 발생의 중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유영주, 1991:개인용). 한편, 미국 연합기업의 Dolores Curran은 가정문제 전문가들 500명을 설문조사하여 건강한 가정들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

되고 있는 15가지의 특징들을 목록으로 작성하였다(최도형 역, 1993).

일본에서의 연구는 현사회의 병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百瀬靖子の 3인(1980)은 '가정생활의 건전도'를 그 사회의 표준적(평균적)이라고 간주되는 가정기능을 평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족관계 및 생활의식을 갖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日本 家政學會 家庭經營學部會 關東地區에서는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제문제를 처리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영위되는 정도(強弱)라고 가정건전도를 정의하였다(橫山廣子, 1979).

下東艶子和 高橋淳子(1982)는 '가정생활의 건전도'를 내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으로 건강하고 衣와 食이 못하고 희망과 충실감 있는 생활이 영위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측정도구로는 '가정생활 진단테스트'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로써 이들은 일반적 주부의 가정경영의 맹점이 노출되고 경영능력과 계획성의 부족등이 나타났다으며 가정생활의 건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가정생활의 건전도측정결과(제2보)"에서 가족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부는 일상의 가정경영에 있어서 가족생활과 衣食住 생활의 운영이나 자녀교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유영주(1991)에 따르면 '건전가정'이란 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특히 대내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가정'이며, '가정건전도는 가정의 기능 수행정도'이며 기능수행정도는 남편의 수행도, 아내의 수행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수준으로 높게 수행하는 경우 집단으로서의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서병숙(1994)은 '건전가정'이란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가족가치관과 가족체제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가정'이라고 정의하고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대책을 가정차원, 국가,사회차원에서 폭넓게 논의하였다.

지영숙(1994)은 '건전가정은 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가정'이고 그 기능들의 수행을 위한 바른 자세와 실천하는 용기와 노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지영숙(1996)은 가정윤리적 측면에서 물질주의와 인간우월에서 비롯된 현대경쟁사회의 부적 문제들을 개선하기위하여 가정윤리가 바로 서야 함을 강조하고 慙(자기를 척도로 처지를 바꾸어 타인을 생각하는 자세)의 윤리으로써 자기중심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미혼자녀를 둔 부모의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미혼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정생활건전도는 어느 정도이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요인이 가정생활건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며,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는 가정생활 건전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

2.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미혼자녀가 동거하고 있는 가정의 부모중에서 가정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자료의 수집절차는 먼저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여 표집크기를 배분한 후,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 24개지역구에 할당하였다.

1995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본조사에서는 총 1,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907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응

답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신뢰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62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척도의 구성과 분석방법

본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문항, 그리고 가정건전도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척도는 지영숙·이영호(1994b)가 개발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가정건전도 척도는 Dolores Curran이 제시한 건강한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5가지의 특징을 기초로 연구자가 문항화하여 구성하였으며 이의 신뢰도로서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PC+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백분율과 빈도, 평균, 표준편차, 집단간 차이의 검증(t-test, ANOVA), 그리고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미혼자녀가 있는 총 629가정으로 부모님중에서 가정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응답토록 한 결과, 응답자중에서 407명이 어머니로 나타나 전체의 2/3가정에서 가정교육의 담당자는 어머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는 전체의 36.2%이며, 전업주부가정은 63.6%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편부가정은 2가정,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편모가정은 5가정이었다. 대부분의 가정이 핵가족(93.3%)으로 확대가족은 전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구 분	N	F	비 고	변수명	구 분	N	F	비 고	
응답자	아버지	222	35.3	-	모의 취업***	전 업	396	63.2	-	
	어머니	407	64.7			취 업	231	36.8		
가족 형태	핵 가족	587	93.3	-	연 령	20대	7	1.1	M 41.99 Std 5.90	
	확대가족	42	6.7			30대	212	33.7		
부모 형태*	양부모	622	98.9	-		40대	342	54.4		-
	편 모	5	0.8			50대	65	10.3		
	편 부	2	0.3			60대이상	3	0.5		
가정 생활 주기**	미취학기	75	11.9	M 15.93 Std 9.21		교 육 수 준	국졸	18		2.9
	초등교육기	173	27.5		중졸		34	5.4		
	중등교육기	120	19.1		고졸		252	40.1		
	고등교육기	118	18.8		대졸		256	40.6		
	대학기이상	148	22.7		대학원이상		69	11.0		
월평균 가 계 소 득	100만이하	36	5.7	M 286.98 Std 212.34	주관적 경 제 평 가	상의상	6	1.0	-	
	101 - 150	89	14.1			상의하	44	7.0		
	151 - 200	166	26.4			중의상	335	53.2		
	201 - 250	65	10.3			중의하	196	31.1		
	251 - 300	120	19.1			하의상	40	6.4		
	301 - 350	18	2.9			하의하	8	1.3		
	351만이상	135	21.5			N빈도, F백분율, M평균, Std표준편차				

* 부모형태는 대다수 가정이 양부모 가정으로 편모, 편부가정의 사례가 적으므로 차후의 분석에 서는 변수로 투입하지 않았다.

** 가정생활주기는 동거가족 중 큰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평균값은 큰 자녀의 평균 연령이 된다.

***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편부가정의 경우를 제외한 총 사례수가 627이 된다.

체의 6.7%였으며, 평균가족수는 3.94명이다. 가정생활주기는 자녀가 중등교육기인 경우가 37.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초등교육기, 대학교육기의 순서로 분포하였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1.99세이며 평균수학년수는 13.84년으로 이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월평균가계소득은 286.98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정도는 상류층이 8%, 중류층이 84.5%, 하류층이 7.7%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볼 때, 조사대상가정의 특징은 4인으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중류의식을 갖고 있는 평범한 보통가정으로 파악된다.

IV.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 및 가정진전도 분석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의 결과)

1.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척도는 1점에서 5점의 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의 내용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태도 변수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가 임의로 평균점수가 4.5이상인 경우를 강한 긍정, 3점을 중심으로 편차 0.2를 허용한 2.8점에서 3.2점사이를 중간적인 태도 그리고 2점이이하를 부정적인 태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강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높은 점수의 태

〈표 2〉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 점수

변수명	문항내용	평균	표준편차
AT 6	가정교육은 인간생활의 기초를 제공한다.	4.66	.66
AT 8	가정교육에서 집안의 분위기는 중요하다.	4.65	.77
AT 4	가정은 자녀가 접하는 최초의 학교이다.	4.62	.85
AT 10	가정교육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4.58	.71
AT 12	가정교육은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4.33	.92
AT 20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아도 훌륭한 가정교육은 가능하다.	4.30	.95
AT 14	가정교육의 책임은 자녀의 인격형성에 있다.	4.11	1.02
AT 16	가정교육은 양친의 태도가 일관적이어야 한다.	3.99	1.10
AT 18	가정교육은 후천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3.92	1.08
AT 22	가정교육에서 체벌은 필요한 것이다.	3.61	1.12
AT 13	가정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3.20	1.28
AT 17	가정교육의 최고 책임자는 어머니이다.	3.09	1.29
AT 19	가정교육은 자녀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한다.	2.93	1.43
AT 11	가정교육의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다.	2.88	1.23
AT 5	가정교육은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우선이다.	2.82	1.27
AT 15	가정교육은 부모의 경제상태와 관계가 있다.	2.80	1.24
AT 7	자녀의 서열에 따라 가정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2.39	1.38
AT 21	가정교육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가 있다.	2.34	1.19
AT 9	가정교육은 남보다 우월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2.27	1.17
AT 3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것도 가정교육이다.	2.24	1.15
AT 1	가정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00	1.24
AT 2	가정교육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8	1.28
AT 23	자녀교육은 학교에 일임하면 된다.	1.62	.99
AT 24	가정교육은 부부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1.37	.83

도는 '가정교육은 인간생활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정교육에서 집안의 분위기는 중요한 것이다', '가정은 자녀가 접하는 최초의 학교이다', '가정교육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의 문항들로 이들 문항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정말 그렇다고 하는 강한 긍정을 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문항의 내용은 종합해 볼 때 대체로 조사대상자들은 가정을 교육의 장으로서, 부모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문항은 '가정교육은 부모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자녀교육은 학교에 일임하면 된다', '가정교육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정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의 4문항으로 이들 문항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정교육과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그리고 부모의 역할간의 상호관련성을 부정하는 문항들이므로 조사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가정교육과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그리고 부모의 역할간의 상호관련성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간적 점수를 보이는 문항은 '가정교육은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우선이다', '가정교육의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다', '가정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가정교육은 부모의 경제상태와 관계가 있다', '가정교육의 최고 책임자는 어머니이다', '가정교육은 자녀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한다'의 6문항으로 '그저 그렇다(3점)'를 중심으로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 척도는 모두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몇 개의 공통된 집단(요인)으로 묶어 정보를 요약하고, 변수들내에 존재하는 상호독립적인 특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별 신뢰도를 구하였다.(<표 3>)

요인분석의 결과,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는 3개의 요인으로 요약되었다. 요인결정의 채택기준은 요인 부하값이 .33이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요인에서 .33 이상의 요인부하값을 갖는 문항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결과 제1요인에는 10개의 문항, 제2요인에는 5개의 문항, 그리고 제3요인에는 9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1요인은 "강력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태도", 제2요인은 "교육방법상 상황적인 태도", 그리고 제3요인은 "책임전가적, 회피적 태도"라고 명명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표 4>).

먼저 '강력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태도'인 1요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응답자($p < .05$), 가족형태($p < .05$), 교육년수($p < .01$), 가족생활주기($p < .001$)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태도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점수가 더 높고,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년수의 경우는 고등교육이 이상이 중학교졸업 이하의 경우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유의도를 보인 가족생활주기는 주기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였다. 이는 자녀양육의 초기에 가정교육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는 것을 반영한 다.

제2요인인 '교육방법상 상황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어머니의 취업여부($p < .001$), 교육년수($p < .001$), 가족생활주기($p < .001$), 월평균 가계 소득수준($p < .05$), 주관적 경제수준($p < .00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한 가정이 전업주부가정보다 점수가 높아 취업주부 가정이 가정교육 방법상 상황에 따른 대안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년수는 국졸이하와 대학원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가족생활주기는 자녀의 중등교육기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 시기가 자녀로서는 사춘기에 해당하며, 부모로서는 교육방법상의 전환이 필요한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주관적 경제수준이 중간 정도일때와 객관적 경제수준을 말해주는 월평균 가계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제2요인의 특징은 제1요인에 비해 객관적, 주관적 경제변수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책임전가적 회피적 태도인 제3요인에는 가정교육

〈표 3〉 가정교육의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변수명	제1요인 (강력한 의지와 신념 있는 태도)	제2요인 (교육방법상 상황 적인 태도)	제3요인 (책임전가적, 회피적인 태도)	H ² (Communality)
AT 8	.62256	-.17033	-.33787	.53075
AT 12	.61954	.03735	-.13664	.40390
AT 6	.59068	-.33223	-.12743	.47552
AT 4	.54313	-.29094	-.10528	.39073
AT 10	.47284	-.27580	-.22476	.35016
AT 16	.43888	.14249	-.04891	.21531
AT 22	.39911	.02387	-.00460	.15988
AT 20	.36776	-.32097	-.08571	.24561
AT 14	.35389	.23939	-.03800	.18399
AT 13	.33162	.32620	.21649	.26325
AT 21	-.09359	.60842	.25005	.44146
AT 19	.18552	.59327	-.16005	.41200
AT 3	-.18194	.57944	.00751	.36891
AT 7	-.04240	.54546	.06451	.30349
AT 15	-.04144	.53151	.27643	.36064
AT 23	-.22432	.07795	.62533	.44743
AT 2	-.05423	-.15477	.55157	.33113
AT 24	-.24789	.13976	.49682	.32482
AT 5	.10541	.33230	.43994	.31508
AT 9	-.15276	.41861	.43777	.39022
AT 17	.37975	.33904	.40064	.41967
AT 11	.16198	.35440	.37736	.29424
AT 1	-.12429	.09312	.33822	.13851
AT 18	.31771	.26830	-.33102	.28250
교유값 전체변량 공통변량	4.18976 17.5 17.5	2.57367 10.7 28.2	1.28876 5.4 33.6	ΣH ² = 8.05220
Cronbach's α	.666	.623	.600	

의 담당자(p <.001), 가족형태(p <.001),母的 취업여부(p <.001), 교육년수(p <.001), 월평균가계소득(p <.01)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이, 전업주부가정보다 취업주부가정이 점수가 높았으며 교육년수에서는 국졸이하 집단과 대학원이상 집단이 월평균가계소득은 150만원이하 집단과 350만원이상 집단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정리해보면 응답자에 따라서 아버지가 책임전가적 태도가 높았으며 가족형태에서는 확대가족의 응답자가 책임전가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제1요인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제2요인의 경우(p <.001)와 제3요인의 경우(p <.001)에는 높은

〈표 4〉 가정교육의 태도에 대한 집단간 평균의 차이검증

변수명	분류	제1요인 (강력한지와 신념이 있는 태도)		제2요인 (교육방법상 상황적인 태도)		제3요인 (책임진가적 회피적인 태도)	
		평균값	유의도	평균값	유의도	평균값	유의도
가정교육 담당자	아버지	41.4811	t=-2.35*	12.8813	t=.82	22.6514	t=3.76***
	어머니	42.3878		12.6015		21.1538	
가족 형태	핵가족	42.1723	t=2.06*	12.6540	t=-1.09	21.4759	t=-4.03***
	확대가족	40.6585		13.3750		24.5610	
母的 취업유무	전업주부	42.0628	t=-.05	12.2333	t=-3.81***	21.0435	t=-4.38***
	취업주부	42.0811		13.5000		22.7609	
연령	20대	42.1429	F=2.02	10.6667	F=1.16	19.5714	F=.58
	30대	42.6087		12.9426		21.7767	
	40대	41.9448		12.5910		21.5735	
	50대	41.0820		12.5231		22.0923	
	60대이상	38.3333		16.0000		23.0000	
교육 수준	국졸이하	40.9444	F=3.80**	14.4444	F=11.34***	24.6667	F=7.69***
	중졸	40.6667		11.6970		22.0294	
	고졸	41.6067		12.0041		21.4315	
	대졸	42.8745		12.6680		21.0159	
	대학원이상	41.7463		15.3676		24.0435	
가족 생활 주기	미취학기	43.4507	F=7.48***	13.000	F=9.98***	20.000	F=1.38
	초등교육기	43.0060		11.000		21.000	
	중등교육기	42.2500		20.125		23.7500	
	고등교육기	41.0263		13.166		21.5000	
	대학기이상	40.9037		13.263		20.7000	
경제 수준	상	43.0000	F=.13	11.1667	F=7.40***	22.5000	F=.21
	중	42.5116		14.7500		21.7955	
	하	42.2609		12.4030		21.4985	
월평균 가계 소득	150만원이하	41.3534	F=1.47	12.6446	F=3.21*	22.7705	F=4.90**
	150-250	42.0714		12.2478		20.9825	
	251-350	42.5303		12.6176		21.2628	
	351만원이상	42.2348		13.5926		22.2985	
각 요인의 평균		42.0695		12.7006		21.6795	

* P<.05 ** P<.01 *** P<.001

유의미성을 보여 중요한 변수로 사료된다.

또한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친 미친 변수는 교육년수로서 제1요인의 경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이나 제2요인과 제3요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과 가장 높은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하고 해석상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생활주기는 제1요인의 경우 가족생활주기가 높아짐에 따라 점수가 차츰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며 제2요인의 경우 자녀가 중등교육기에 가장 점수가 높았고 제3

요인의 경우도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중등교육기에서 점수가 가장 높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연령은 모든 요인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가정교육의 주체자의 연령보다 가정교육 대상자의 연령, 즉 가족생활주기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 가정생활의 건전도

가정의 건전도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조사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유형은 1점에서 5점의 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의 내용을 긍정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5〉).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문항은 '우리 가족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가르친다'로서 4.28점을 나타냈고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인 문항은 '우리 가족은 여가를 함께 즐긴다'로서 3.41점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에서 중간점인 3점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그런 편이다'의 반응을 보인 4점 이상의 문항은 '우리 가족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가르친다(4.28)', '우리 가족은 서로를 신뢰한다(4.08)', '우리 가족은 타인에 대한 존경을 가르친다(4.02)'의 세 문항에 그쳐 전반적으로 가정생활의 건전도에 대한 여러 부분에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전도 척도의 각 점수를 합한 총점수는 최저 15점에서 최대 75점의 분포를 가지므로 중간 점수는 45점이 된다. 조사대상자들의 총점수에 대한 응답 결과로서 평균은 56.31점, 중간값은 56점, 최빈값은 52점으로 나타났다. 총점수에 대한 빈도분포의 결과에

따라 응답자 가정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면 하위 31.6%의 가정은 52점 이하였고, 중간 37.5%의 가정이 53점에서 60점 사이에 분포하였고, 상위 30.9%의 가정이 61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생활의 건전도 척도 15개 문항에 대하여 '대체로 그런 편이다(4점)'에 반응을 보인 것이므로 조사대상 가정의 1/3에 못미치는 가정만이 가정생활의 건전함을 보여주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목된다. 이는 유명주의 연구(1991)에서 가족기능 수행도 조사 결과, 부부가 공히 가족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가족은 불과 1/3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매우 유사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생활의 건전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표 6〉).

가정교육의 담당자, 가족형태, 母의 취업유무, 연령, 교육수준, 가족생활주기, 주관적 경제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등 8개 변인 가운데 연령($p < .001$), 교육수준($p < .001$), 가족생활주기($p < .001$), 주관적 경제수준($p < .01$)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집단과,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높은 집단일수록 낮은 집단에 비해 가정생활의 건전도가 뚜렷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고등교육기에서 가장 점

〈표 5〉 가정의 건전도 점수 (높은 점수 순 배열)

변수명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SH 7	우리가족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가르친다.	4.28	0.72
SH 4	우리가족은 서로를 신뢰한다.	4.08	0.82
SH 3	우리가족은 타인에 대한 존경을 가르친다.	4.02	0.82
SH 1	우리가족은 서로를 잘 도와준다.	3.85	0.96
SH 2	우리가족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	3.83	0.87
SH 6	우리가족은 공동적인 책임의식이 있다.	3.79	0.91
SH 10	우리가족은 서로의 개인생활을 존중해준다.	3.79	0.95
SH 11	우리가족은 이웃에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3.77	0.96
SH 8	우리가족은 균형잡힌 상호작용을 한다.	3.70	0.91
SH 5	우리가족은 유-머감각이 있다.	3.59	1.09
SH 13	우리가족은 모두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3.58	1.09
SH 12	우리가족은 전통적인 가족관념이 강하다.	3.54	1.12
SH 9	우리가족은 공통된 종교를 가지고 있다.	3.51	1.53
SH 15	우리가족은 문제가 생기면 친척이나 이웃과 도움을 주고 받는다.	3.44	1.20
SH 14	우리가족은 여가를 함께 즐긴다.	3.41	1.23

Cronbach's $\alpha = .8764$

〈표 6〉 가정생활의 건전도에 대한 집단간 평균의 차이검증

변수명	분류	가정생활의 건전도	
		평균값	유의도
가정교육의 담당자	아버지	57.0042	t = 1.41
	어머니	55.9362	
가족형태	핵가족	56.3116	t = -.01
	확대가족	56.3250	
취업유무	전업주부	56.5183	t = .74
	취업주부	55.9646	
연령	20대	59.4286	F = 4.90***
	30대	58.2670	
	40대	55.3860	
	50대	54.8571	
	60대	47.0000	
교육수준	국졸이하	47.5556	F = 11.84***
	중졸	53.0303	
	고졸	54.9585	
	대졸	57.7125	
	대학원이상	59.8841	
가족생활주기	미취학기	61.2778	F = 13.06***
	초등교육기	58.0238	
	중등교육기	56.1804	
	고등교육기	53.4643	
	대학기 이상	54.0580	
주관적경제수준	상	56.8776	F = 4.96**
	중	56.6140	
	하	52.3478	
월평균가계소득	150만원이하	54.6281	F = 2.40
	151-250	57.1749	
	251-350	55.8626	
	351만원이상	56.8346	
평균		56.3125	

* P<.05 ** P<.01 *** P<.001

수가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높은 집단일수록 낮은 집단에 비해 가정생활의 건전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상류층과 중류층 집단에는 차이가 없으나 하류층의 귀속의식을 가진 집단은 가정생활의 건전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 경제수준인 월평균 가계소득은 가정생활의 건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관적, 심리적으로 하류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건전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연령이 60대인 집단과 국졸이하 집단의 경우 가정생활의 건전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유일하

게 건전도 점수가 60점을 상회하는 집단은 미취학기 아동을 둔 집단으로 나타났다.

V.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가 가정건전도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3)의 결과)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가 가정건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2차에 걸친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정교육에 대한 3가지의 태도요인 즉, '강력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태도(제1요인)', '교육방법상 상황적인 태도(제2요인)', 그리고 책임전가적, 회피적인 태도(제3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설명력이 높고, 유의도가 높은 변수순으로 투입되다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변수들만 남게 되면 분석이 중단되는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 1요인(p<.001)과 제 2요인(p<.001)만이 가정건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는 가정건전도 전체변량의 19.8%를 설명(p<.001) 하고 있는데 특히 '강력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태도'인 제 1요인이 그 중 16.7%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임이 나타났다. 한편 제 3요인(책임전가적, 회피적인 태도)은 분석에서 제외되어 가정건전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40, p<.001)는 태도가 가정건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이는 지영숙·이영호(1994a)에서도 지적되었던 가정교육에서의 '부친부재현상'에서 비롯된 가정내 병리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가정교육에서의 아버지의 참여가 요구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정교육은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우선이다'와 '가정교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의 2개 태도문항은 제3요인인 책임전가적, 회피적인 태도에 속하는 문항들로서 1차 회귀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변수들이다. 또한 '가정교육은 부모의 경제상태와 관계가 있다', '가정교육의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다', '가정교육은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표 7> 가정건전도에 대한 태도요인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독립 변수	B	β	partial R ²
강력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태도	.7622	.3913***	.1665
교육방법상 상황적인 태도	.3939	.0834***	.0316
회귀상수	29.3157		
R ² (adjusted R ²)	.1981(.1953)		
F	69.9053***		

* P<.05 ** P<.01 *** P<.001

또한 가정건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항들인지 알아보기위하여 2차적으로 24개의 태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최종분석결과 총 24개 문항중에서 9개의 문항만이 가정건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9개의 문항은 가정건전도의 전체변량중 24.8%를 설명(p<.001)하고 있는데 특히 '가정교육은 인간생활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태도가 그 중 11.6%를 설명하고 있다.

'가정교육은 부모의 경제상태와 관계가 있다($\beta=-.158, p<.001$)' 와 '가정교육은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우선이다'($\beta=-.139, p<.001$)라고 하는 태도는 가정건전도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적 사고와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의 독선이 경계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가정교육의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다'($\beta=-.$

우선이다', 그리고 '가정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의 4개문항은 평균태도점수로 보았을 때 중간점수에 해당하는 문항들로서 이들에 대한 태도를 전환시킬 수 있는 또는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서 주목할 만한 몇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이 태도는 가정교육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가정은 교육의 場으로서, 부모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가정교육과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그리고 부모의 역할간의 상호관련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력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태도(제1요인)'

〈표 8〉 가정건전도에 대한 개별 태도문항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독립 변수	B	β	partial R ²
가정교육은 인간생활의 기초를 제공한다.	2.5123	.1853***	.1160
가정교육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1.5490	.1235**	.0405
가정교육은 부모의 경제 상태와 관계가 있다.	-1.1413	-.1575***	.0196
가정교육의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다.	1.0169	.1399***	.0194
가정교육은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1.0885	.1112**	.0132
가정교육은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우선이다.	-.9869	-.1394***	.0159
가정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7100	.1018**	.0099
가정교육의 책임은 자녀의 인격형성에 있다.	.7544	.0837*	.0071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아도 훌륭한 가정교육은 가능하다	.8075	.0854*	.0064
회귀상수	27.0422		
R ² (adjusted R ²)	.2480(.2358)		
F	20.4768***		

* P<.05 ** P<.01 *** P<.001

는 아버지보다 어머니, 교육수준이 고등학교졸업 이상인 집단에서 높았으며, 특히 가족생활주기가 초기 단계일수록 높아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방법상 상황적인 태도(제2요인)'는 취업주부집단과 교육수준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집단, 그리고 가족생활주기가 중등교육기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책임전가적, 회피적인 태도(제3요인)'은 확대가족과 취업주부집단, 교육수준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집단, 그리고 고소득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건전도 점수로 미루어 건전가정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은 전체응답자 가정의 1/3에 못미치는 30.7%의 가정만이 해당되었다. 가정건전도 점수는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생활주기가 초기 단계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을 하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와 가정건전도와 관계는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요인이 '강력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태도'를 가질수록 가정건전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개별 태도문항의 내용으로는 '가정교육은 인간생활의 기초를 제공', '부모가 모범을 보이

는 것', 가정교육의 의무가 아버지에게 있다'등 7개 태도는 가정건전도에 正的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정교육은 부모의 경제상태와 관계가 있다', '가정교육은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우선이다'의 2개 태도는 負的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건전한 가정의 육성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필수과제이고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와 가정의 건전도는 유의한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강력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태도가 매우 요구되고 이는 가족생활주기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업주부집단, 교육수준이 아주 낮거나 높은 가정에서의 교육방법상의 태도부분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판단되므로 지나치게 상황적이거나, 방임적이거나, 지나친 자율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특별히 유의하여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가정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몫을 증가시키고,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만을 우선하는 독선을 경계하며, 부모의 경제상태에 의존, 혹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갖추어 가

야할 부모됨의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영길(1995), 부실치유, 교육개혁으로. 중앙일보, 7월 18일자, 4면.
- 2) 김영철(1996), 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청소년 대화의 광장, 제4회 「학술세미나자료집」, 77-93). 재단법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3) 서병숙(1994),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 가정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275-280.
- 4) 신용하·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합리적 공동체로서의 한국형 가족모델. 서울:지식산업사.
- 5) 유영주(1991),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정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제1호, 45-63.
- 6) 유효순(1996), 자녀의 성장과 부모교육(청소년 대화의 광장, 제4회 「학술세미나자료집」, 25-52),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
- 7) 이동원 외(1996), 대학입시와 한국가족. 서울:다산출판사.
- 8) 이은화(1996), 부모교육의 현황과 전망(청소년 대화의 광장, 제4회 「학술세미나자료집」, 7-21).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
- 9) 장현섭(1994), 제멋대로 자란 아이들:신세대의 가정교육(한남제의 공저, 「한국가족관계의 문제-방황하는 자녀, 소외된 노인-」). 서울:다산출판사.
- 10) 채서일·김범중(1988), SPSS/PC를 이용한 통계 분석. 서울:법문사.
- 11) 조성숙(1995), 가족의 자녀교육(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165-216.
- 12) 지영숙(1994),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정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275-280.
- 13) 지영숙(1996), 행복한 가정을 위한 홍보교육 및 건강가족모델 정립과 관련하여-가정윤리적 차원에서. 대한가족계획협회세미나 토의자료.
- 14) 지영숙·이영호(1994a), 家庭教育의 現代的 課題 (第3報). 人文科學, 제 24집, 155-170. 성균관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 15) 지영숙·이영호(1994b), 가정교육의 태도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시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80-89.
- 16) 최도형 역(1994), 건강한가정을 원하십니까?, 서울:엘멘출판사. (Dolores Curran, Traits of Healty Family)
- 17) 塩田芳久(1963), 教育心理學室驗演習 II. 東京:同學社.
- 18) 横山光子·大森和子 監修(1979), 新しい家庭生活を考える. 東京:樂游書店.
- 19) 百頼靖子·湯泥推彦·末廣和子·内海すの子(1980), 家庭生活の健全度測定. 日本家政學雜誌, Vol. 31 No.7, 40-46.
- 20) 下東艶子·高橋淳子(1982), 家庭生活の健全度測定結果(第1報):調査項目別・調査對象の屬性別診斷結果. 日本家庭學雜誌, Vol.33 No.12, 50-60
- 21) 高橋淳子·下東艶子(1983), 家庭生活の健全度測定結果(第2報):調査項目間の相關. 日本家庭學雜誌, Vol. 34 No. 2, 53-56.